

##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우기철 편집국장: 조현근

# 1997년도 각 부서 사업 계획 및 예산 편성

10월 20일까지 제출, 96년 대비 10% 증가율 인정  
컴퓨터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교**회는 1997년도를 계획하며 우선 새해 각 부서의 사업 계획 및 예산 편성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새해의 준비가 각 부서의 사업 계획 및 예산 편성에서부터 시작되기에 이제 서서히 금년을 마무리 하며 새해 준비를 해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

사업 계획 및 예산 편성은 교회의 회계 제도가 일원화 되어 있고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위하여 각 부서의 사업 및 예산 계획을 총정리하여 교회 예산 전체가 작성되므로 한번 확정된 후에는 신규 사업의 추가, 변경, 추가예산 증액, 지원 등이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런 경우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특별 청원에 의해 처리되기 때문에 각 부서는 내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편성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작성해야 한다.

사업 계획 및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은 각 부서에서 교회의 5대 목표 달성을 염두에 두고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목표에 접근하는 방향 아래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금년도 사업에 대한 바른 평가를 통해 내년도 계속 사업 여부를 정할 수 있고 1997년도 신규 사업을 계획할 수도 있다.

예산 편성 시 금액 제시는 공통 적용

단가표(교회 작성)에 의하여 산출 근거(횟수, 단가, 인원 등)를 정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총 예산의 증가율도 10% 이내로 해야 한다. 또한 인원 기준은 1997년도 인원 기준표(별표 참조)에 의해서 해야 하며, 사업 실시일에 인원 증가에 대해서는 그 증가된 인원만큼 추가 정산하여 지급하게 된다.

또한 교회학교 중 중등1부~청년2부, 새가정부는 면려회 사업 계획 및 예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작성 방법은 준비된 서식에 따라 컴퓨터로 작성할 경우에는 디스켓과 함께, 부서장 명의의 인쇄물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수기로 작성할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획실(선교관 302호 / 교환 430번)로 제출해야 한다.

사업 계획 및 예산 편성 작성 일정은 다음과 같다.

1996. 9. 22 97년도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지침 통보와  
제출 의뢰  
10. 20 제출 마감  
12. 4 당회 승인  
12. 29 제적회 승인  
1997. 1. 5 공동의회 승인

## 〈인원기준표〉

| 교회학교    | 교사  | 학생  | 합계  |
|---------|-----|-----|-----|
| 영아부     | 35  | 170 | 205 |
| 유아부     | 43  | 270 | 313 |
| 유치부     | 70  | 340 | 410 |
| 초등1부    | 51  | 190 | 241 |
| 초등2부    | 47  | 170 | 217 |
| 초등3부    | 49  | 220 | 269 |
| 초등4부    | 45  | 190 | 235 |
| 초등5부    | 51  | 230 | 281 |
| 초등6부    | 56  | 240 | 296 |
| 중등1부    | 55  | 290 | 345 |
| 중등2부    | 59  | 280 | 339 |
| 중등3부    | 61  | 310 | 371 |
| 고등부     | 86  | 650 | 736 |
| 대학부     | 23  | 430 | 453 |
| 청년1부    | 10  | 270 | 280 |
| 청년2부    | 38  | 100 | 138 |
| 장년1부    | 47  | 240 | 287 |
| 장년2부    | 56  | 240 | 296 |
| 장년3부    | 66  | 280 | 346 |
| 소망부     | 70  | 420 | 490 |
| 새가정부    | 25  | 160 | 185 |
| 사랑부     | 138 | 180 | 318 |
| 에바다부(성) | 27  | 40  | 67  |
| 에바다부(학) | 46  | 50  | 96  |
| 탁아부     | 132 | 260 | 392 |
| 영어부     | 25  | 150 | 175 |
| 예신부     | 12  | 40  | 52  |

| 찬양대      | 대원  |
|----------|-----|
| 가브리엘     | 102 |
| 임마누엘     | 173 |
| 할렐루야     | 144 |
| 아 멘      | 93  |
| 호산나      | 89  |
| 실로암      | 56  |
| 시 온      | 32  |
| 오케스트라(2) | 24  |
| 오케스트라(3) | 43  |
| 핸드벨      | 50  |
| 크로마하프    | 27  |
| 중장관      | 8   |

## 선교지 및 이스라엘 성지연구소 답사

교회는 오는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선교위원회 실행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선교지 및 이스라엘 성지연구소 답사를 실시한다.

이번 답사팀은 이스라엘, 이집트, 터키를 방문하고 팔레스타인 난민에게 구호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팀의 팀장은 박승준 장로이며, 대원은 13명이 참가한다.

## 다음 주〈주간 충현〉휴간

다음 주 9월 29일자 〈주간 충현〉은 추석 연휴 관계로 휴간합니다.

## 요한·마리아전도회·청년2부

### 연합 체육대회

10월 5일(토) 오후 2시  
교회 본당 앞에서

30대들이 모이는 요한전도회, 마리아전도회, 교회학교 청년2부가 연합으로 체육대회를 갖는다. 매년 전체 요한전도회가 모여 각 지회별 대항 체육대회를 가졌었으나 금년에는 이를 확대하여 교회의 30대들의 전체 모임으로 발전시켜 남자 요한전도회, 여자 마리아전도회, 교회학교 청년2부가 더함께 모여 연합 체육대회를 계획, 준비하고 있다. 오는 10월 5일(토) 오후 2시부터 교회 본당 앞뜰에서 모인다.

## 여전도회 연합

### 주부교양강좌 설명회

전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주부교양강좌를 위한 설명회가 오는 9월 29일(주일) 오후 3시 베다니홀에서 모인다. 참가 대상은 마리아, 루디아, 에스더, 한나 여전도회 회원 전 임원들이다.

## 충현동산

### 관리비 납부 요망

#### 추석절 성묘시 주의사항도

충현동산에서는 추석절을 전후하여 관리비를 수납하고 있다. 관리비는 1기(基) 당 1년에 3만원으로 동산 관리사무소나 교회 사무국에 납부하면 된다.

특히 충현동산에서 추석절 성묘객들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것이 있는데 ① 묘소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 것 ② 화분, 생화, 조화 등의 헌화는 묘소 잔디 성장 및 주변 미관 정리에 지장이 크므로 되도록 생화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 96년도 하반기 교역자 수련회

96년도 하반기 교역자 수련회가 지난 9월 16일(월)부터 18일(수)까지 2박 3일 동안 수안보에서 열렸다.

이번 수련회에는 당회장 김창인 목사를 비롯한 46명의 교역자가 참여하였으며, 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 성경 읽기와 기도회, 그리고 내년도 교회의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각 분야별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들을 가졌다. 특히 잘 짜여진 시간과 체계적으로 준비된 강의와 토론 등으로 매우 유익한 수련회였다.



충현강단

● 김창인 목사의 사편 강해 ●

# 경건한 자가 받는 복

(시편 32:1-11)

**다**윗이 왕이 된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이웃 나라에 위엄을 떨쳤습니다. 그때에 요압 장군이 군인들을 거느리고 암몬과 전쟁을 하던 중 랍바라고 하는 성을 거의 함락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하루는 궁전 높은 망대에서 사방을 둘러보며 '내가 이렇게 큰 예루살렘을 건설했구나' 교만한 마음으로 살피다가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나 아름다워 보이던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자를 궁궐로 데리고 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우리아라는 충성스러운 장교의 부인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충성스러운 신하의 부인인 줄 알면서도 그 여자를 범하여 7계명을 범했습니다. 죄를 범한 후 여자가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우리아를 격전지로 보내어 죽게 했습니다.

얼마 후 다윗 왕은 밧세바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중으로 무서운 죄를 범하고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다윗 왕을 찾아 가서 그의 숨겨 놓은 죄를 그대로 드러내놓습니다. "당신이 이런 죄인이요, 당신이 범한 죄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당신이 징계를 당할 것입니다." 무섭게 선언합니다. 누구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나단 선지자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윗 왕에게 무서운 선언을 내렸습니다. 그 때에 다윗 왕이 자기의 권세를 믿고 나단 선지자를 가두어 버리거나 죽여 버렸으면 다윗은 그것으로 끝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죄를 범한 것은 나빴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을 때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거꾸러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며 범한 죄를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두 고백을 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요를 적시고 배개를 적시어 그 눈물로 요가 썩을 정도로 매일 같이 통곡을 합니다. 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다윗 왕에게 사죄의 응답이 왔습니다. 사죄의 응답을 받으니 마음이 시원해지고 영혼에 성령님의 은혜가 다시 오니 마음이 기쁘지고 육신의 건강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내가 죄를 범하고 숨겨 두었을 때에 당하던 괴로움이 이랬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니 하나님이 내게 다시 이런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을 간증하면서 "내 백성들이 죄를 범했으면 회개하라. 내가 무서운 죄를 범하고서도 용서를 받았는데 너희 가운데도 용서 못받을 자가 없느니라. 회개하고 복을 받자" 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시가 시편 32편입니다.

## 1. 경건한 자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32:1-5)

(1)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죄는 세 가지로 말을 하는데, 첫째는 허물입니다. 허물이란 같은 죄이지만 죄인 줄 모르고 범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죄입니다. 죄란 습관이 되어서 끊지를 못하고 세력에 눌려서 할 수 없이 끌려 가면서 범하는 잘못입니다. 셋째는 죄악입니다. 죄악은 죄인 줄 알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행하는 죄입니다. 고의적 죄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되는 줄 알면서 꾸며서 거짓을 말하고,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고의적으로 범한 죄를 죄악이라고 합니다.

땅 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 이 세 가지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르고 저지른 허물보다 알고도 약해서 범한 죄가 더 많은 것이 인생이고, 알고도 약해서 범한 죄보다 계획적으로 범한 죄가 더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죄를 범할 때에는 재미가 있어서 범하고, 이익이 나서 범하고, 충동적으로 범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다음에 갇아야 할 벌이 옵니다. 죄의 값은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로 이자가 붙어서 옵니다. 빨리 회개하지 못하면 한 대 맞을 때가 열 대, 백 대로 늘어납니다.

죄를 어떻게 범했든간에 간사함이 없이 정직하게 쏟아 놓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법정적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아직 의인은 못됐지만 용서하고 의인으로 취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에게는 용서의 기쁨이 옵니다.

### (2) 신음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죄를 범하고 누가 알까봐 숨기고 또 숨길 때에 탄식과 한숨이 나오고 뼈까지 흔들렸다. 영혼에 고통이 왔고 양심에 번민이 왔고 육체에 질병이 왔고 마치 가물 때에 풀이 시드는 것처럼 영육이 형편없이 시들어 버리는 것 같았는데, 회개한 후에는 이 모든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 (3) 육신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권능의 손으로 죄를 범한 나를 내려 누르시는데 그때에 나의 온 몸은 진액이 빠져나가 는 것 같고 마치 여름 가물에 풀이 시들어지는 것처럼 내가 시들어졌다.'고 합니다. 다윗 왕이 무서운 죄를 범해 놓고 괴로워하면서 울고 또 울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진액이 마르던 것이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서서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 2. 경건한 자를 향한 다윗의 권면이 어떠합니까(32:6-9)

(1) 기회를 놓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할 때 환난날을 위해 준비해야 되고 건강할 때 죽음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데,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죄를 범한 다음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빨리 회개하는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는 일만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천하 만사에는 다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오기 전에 준비한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편안할 때에 전쟁을 준비한 나라는 원수의 침략을 당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준비한 사람은 남보다 앞섭니다. 남보다 강합니다. 승리하는 자의 자유와 성공하는 자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기회를 놓친 자는 남보다 뒤떨어지고 자유를 빼앗기고 종이 되어야 하며 실패자로서 출고 배고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사람이 잘 못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알고 모르는 사이에 범 죄합니다. 인간은 분명히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책망하기 전에 죄를 깨닫고 '내가 언제 거짓말을 했구나, 큰 잘못을 했구나' 울고 회개하는 사람, 회개의 기회를 바로 아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권면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희망이 있고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잘못된 것이 드러날까봐 남에게 죄를 씌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의 책임은 남에게 씌우고 자기는 그 죄에서 빠지려는 계획을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매맞을 수밖에 없는 죄의 문턱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또 충고와 책망과 교훈을 받을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 들이지 아니하고 원수로 아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세력이 있다고 잘못을 충고하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준비한 지옥불이 있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할 때 환난날을 위해 준비해야 되고 건강할 때 죽음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데,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죄를 범한 다음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빨리 회개하는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는 일만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 (2) 거역하지 말라

사람은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는데 무지한 말이나 거역하는 노

새처럼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나는 무지한 말 같았다.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매를 두들겨 맞았다. 매를 두들겨 맞고야 회개했다. 사랑하는 백성들아, 잘못이 있으면 매맞기 전에 회개하라. 나처럼 매맞고서 회개하지 말고 매맞기 전에 회개하자. 매맞고도 회개 못하면 다음에는 갈 곳 없이 영육이 멸망이다."

## 3. 경건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어떠합니까 (32:10, 11)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슬픔에 빠지고 망하게 되지만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사람은 자기를 믿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에 둘러 싸이게 됩니다. 손댈 자가 없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두루 지켜 주시면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돈을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친구를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책망을 더 좋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울여 들을 줄 아는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매를 맞고도 빨리 고칠 줄 아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원망하고 발악하면 영육에 희망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책망을 듣고 못고치면 경찰서에 불려 가고, 선생님의 책망을 듣고 못고치면 형무소에 불려 가는 데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 두 번 듣고도 고치지 못하고 매를 맞고도 고치지 못하면 마지막에는 형무소보다 더 무서운 지옥에 갑니다.

매맞기 전에 고치고 우물쭈물하다가 매맞은 적이 있으면 또 다시 매맞지 않도록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고 더 많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 96 단기선교 현장 보고

## 우리는 땅끝까지 간다

1996년도 여름은 우리교회의 선교 부문에서는 괄목할 만한 활동을 한 해였다. 그렇다고 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선교대회를 개최한 것은 아니었지만 젊은이들이 주축이 되어 해외단기선교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7월 22일 인도네시아로 12명, 7월 31일 일본으로 15명, 8월 7일 홍콩으로 19명, 8월 14일 터키로 13명, 8월 19일 태국으로 15명, 그외에 대학부와 청년1부 회원들 중심으로 '96 선교한국'에 50여명이 참가하여 선교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으며 선교적 열정을 불태우고 돌아왔다. 이제 그들의 감동적인 보고를 한 자리에 모아 그 감동과 뜨거운 열정을 함께 나누려 한다. 이런 활동들이 갖는 중요성을 함께 공감하기를 바라며. <편집자 주>

### 인도네시아

####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고 승 균(집사, 선교위 실행위원)

**할렐루야!**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함을 드린다.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죄인을 일찌기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 주고 사신 충현교회 일꾼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만만 감사함을 드린다.

특히 금번 인도네시아 단기선교팀 총무를 맡겨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순간순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린다. 김찬곤 목사님과 오인숙 전도사님, 송향자 전도사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한다. 세 분 교역자님들을 사용하셔서 단기 선교 기간 내내 말씀의 은혜가 풍성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섭리에 더욱 감사함을 드린다. 전경금 집사님을 비롯한 대원들과 김정철 장로님을 비롯한 다섯 분 침례를 함께 보내셔서 주님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을 것이다.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연합교회에서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는 모습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욥 8:7)고 하신 하나님께서 별레만도 못하고 구더기 만도 못한 우리들을 사랑으로 돌아 보시고 금번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적은 것으로 드렸는데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린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욥 34:21)라는 말씀처럼 9일간의 단기선교 기간 내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순간순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 영광과 찬송을 드린다.

특히 감사한 것은 대원들 일곱명으로는 유초등부(16학년), 아기부(취학 전 어린이)를 함께 감당하기에 조금 적은 인원였는데 대원들이 합심하여 마임과 인형극, 어하나 게임 그리고 시간마다 찬양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대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실 줄 믿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세계선교에 대한 큰 도전과 사명을 주시며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

을 드린다.

이번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베풀을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이 두 가지 있는데 그 하나는 현지 자카르타한인 연합교회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의 모습이다. 우리 대원 전체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총을 깨닫게 해 주셨다. 교회학교 유초등부와 아기부 교사들의 협력하여 섬기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움 그 자체였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눈에 보일 듯, 손에 잡힐 듯 우리 대원들의 마음을 사로 잡았다. 또 하나는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합심 협력하여서 서로 위하고 풍성한 음식을 때마다 베풀어 주셔서 대원들이 이국 땅에서도 조금도 부족함 없이 건강을 지켜 나가도록 해 주셨다. 자카르타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이 손님 대접하기를 더욱 힘쓰며, 그곳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성경학교를 마치고 현지 교회를 방문하여 인도네시아인들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그들의 뜨거운 열정을 보면서 서만수 선교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을 목도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땅 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여야만 한다는 중대하고도 지극히 평범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서만수 선교사님을 비롯한 정소영 사모님, 김철구 전도사님, 최 목사님, 양 목사님 이렇게 다섯 분과 자카르타한인연합교회 성도들이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자카르타한인연합교회를 축복하셔서 부흥케 하시고 인도네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기원하며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이 귀한 사명에 함께 동참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시 18:1)

### 일본

#### 아버지 하나님을 두고 다른 주인을 찾아 방황하는 일본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얼굴 때문에 우리는 땅 끝까지 가야 한다.

한 해 성(청년1부 회원)

**나**리타공항에 내려서면서 섬나라 일본의 습기와 열기가 후끈 느껴졌다. 언뜻 보아 한국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데 왜 그토록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는가 새삼 신기했다. 해외 여행이라고 몇 번 가지도 않았지만 다른 나라에 도착하면 언제나 신기하게도 그곳이 낯설지 않다는 느낌이 모처럼의 여행의 흥분을 가시게 해버려곤 했는데, 우리가 이미 지극히 익숙한 모습들을 온갖 매체로 보고 들어와서 이미 친숙해져서일까. 어쨌거나 이번엔 더 심했다. 어김없이 새까만 머리카락으로 뒤덮인 거머머리 상점 안의 먹거리며 떠들썩함이며 너무나 한국의 그것들과 닮아 있었다. "사람 사는



▲ 가루이자와 기독교청년 선교대회에서 신앙 안에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일본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립니다."라는 찬양을 하며 일본 청년들에게 한국 청년의 마음을 전했다.

것이 다 똑같구나. 그런데 일본인들은 왜 그렇게 세계에서 별나게 구는거지?" 그때부터 일본이 나에게 도전이 걸려왔다. '나에 대해 뭐 좀 아는 거 있나?' 라고 하듯이, 마치 12명의 정탐꾼 중 10여명을 주눅들게 한 여러고성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듯이.

머물렀던 애다가와 사랑의 교회를 비롯하여 일본의 교회들은 듣던 대로 작았다. 작고 비싼 땅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하니 과연 토끼장이라 부를 만했다. 교인 수도 어린이부터 장년까지 20명 안팎이 되는 교회가 대부분이라고 하니 그 규모를 알 만하다. 사람살이는 이렇게 협소하지만 시내 관광을 하면서 동경 도청을 비롯한 관공서와 야스쿠니 신사, 명치 신궁 등의 크기는 이런 서민들에게 보상이라도 해주듯 어마어마한 것을 보면서 집단주의 국가라고 하는 말이 실감났다. 한국은 군사독재에 대해서 반 백년이 다 되도록 고민하고 대립하다가 그나마 문민정부라고 들어서서 일차적 목표는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문제의 견제 차이로 외국에서 보면 내란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반대 시위가 연일 끊이지 않는데, 일본은 전체적으로 무료할 정도로 안정되어 있었다. 거대 중앙정부의 하급과 같은 권위가 보장된 나라다. 그러고도 저회꺼리 뭉뚱뚱 나라다. 그것도 패트리엇 미사일의 핵심 부품을 만들고 한국 휴대폰의 알맹이와 세계의 첨단기기를 독점한 가장 현대적인 나라 중 하나가 원시적인 종교 형태인 천황제를 기치로 일말의 옳고 그름에 대한 의심도 없이 2차 세계대전의 전범들을 참배하러 명절이면 7,500만명(일본의 인구는 1억2천)이 신사로 거국적 대이동을 하는 나라다.

얌전한 국민들, 씩씩하기 그지없는 여자들, 묵묵히 일하는 남자들, 깨끗한 거리, 높은 사회보장률, 수준 높은 생필품, 세계 최고의 전자 제품들... 질서와 변명과 안정의 대가로 그 크고 높으신 권위를 맹종하는 일본의 모습은 레밍을 떠올리게 했다. 무리를 지어 정처없이 이유도 없이 행군하다 바다로 남김없이 뛰어드는 이상한 습성을 가진 쥐 말이다. 일본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고 있는 방향을 알고나 있을까. 세계 최강이 되기 위해 사용한 정치 이념이자 그들의 종교가 이끌 중국을 생각해보지는 않았을까. 이런 사회에서 의문을 제기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처지가 어떨지는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절대 다수 안의 극소수 - 일본의 기독교인, 그리고 우리 동포들...

애다가와 교회의 주된 구성은 일본인과 결혼한 한국의 여인들과 그 가족들이다. 일본인 남편들은 대체적으로 한참 나이가 많았고 아이들은 한국말을 못했다. 재일교포들이 받는 비인간적인 대우들에 대해 이제 고국이 입을 다문지 오래고, 필요할 때 울타리가 되어 준 기억이 별로 없어서 친정 나라에 뭐 별로 바라는 것도

없고, 다만 이들은 생때 같은 내 핏줄들 살기 좋은 나라 되라고 이놈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던 것이 사명으로 화했다. 이들은 전도와 예배에 그렇게 열심일 수 없다. 선교사의 마음이란 무엇일까. 동포들이 일본을 위하여 기도하는 만큼의 선교사의 마음을 내 자신이 가지려면 난 아직 까마득하다고 느꼈다. 주일 저녁 마련한 '한국 의 밤'에서 우리 청년들이 한복을 곱게 입고 '고향의 봄'을 부를 때 눈가를 훔치던 모습들은 감히 사진찍는 것조차도 무례하다 싶을 만큼 숙연했다. 단순한 향수가 아닌, 일상의 끈고함과 정붙일 곳 없는 타향에서의 고독, 영적으로 황량함에 힘겨워함이 눈에 보였다. 일본의 디아스포라들인 우리 동포들 가운데서 우리가 한 일은 위로였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시고 기뻐하시는 일본 선교사이십니다."

히가리가오가 성서교회라는 작은 교회를 방문했다. 연세가 70이 다 되시는 노구의 목사님이 건물 구입으로 10억원의 빚을 진 교회를 인계받아 일하고 계셨다. 물질적인 부담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가 밀집한 그 지역을 포기할 수 없어서이다. 기독교를 더 친근하고 쉽게 전하기 위해 연구하시는 다나카 목사님과 가족처럼 대해 주시던 교인들, 설교 통역을 하며 급기야는 눈물을 쏟던 정미경 자매님, 엄청난 질문을 퍼붓던 새내기 신자 사또오군, 앓던 얼굴의 다정한 마유코양... 우리나라의 '축복송'을 일본어로 부르면서 예수 안에서 너 나 없이 선택된 왕이요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인할 때, 또 다시 눈물이 솟았다. 이들에게 우리가 가져간 무엇을 줄 수 있으랴. 축복밖에는...

지금도 아파트 공원에서 처음 보는 무슨 신기한 구경이라도 하듯이 수줍게 둘러 서서 열심히 '가미사마와 스바라시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해가며 가사의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앵두 같은 입술을 오물거리던 일본 어린이들이 생각난다(그 날 전도한 15명 중 8명이 교회에 나온다고 한다). 동경대에서 만나 학생 식당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며 한국 기독교의 불가사의한 왕성함을 묻던 진지한 형제, 일본 열도를 뒤덮는 검은 구름 같은 심각한 죄악을 깨닫고 만나는 한국인들마다 사죄하며 일본의 속죄를 위해 연합하여 기도할 것을 제안하던, 가루이자와 기독교청년 선교대회에서 만났던 형제 자매들도 생각난다. 억울함이란 감동이란 무엇이란 쉽게 있는 우리 한국인 체질에도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장면 장면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 일본은 희망이 있다!

선교라는 것은 크리스찬들의 신앙 성장의 훈장이나 장식품도 아니고, 지상최대의 임무나 작전이라는 엄청난 이름으로 부를 사업도 아니다. 계획과 훈련과 회계장부를 넘어선 곳에는 사람이 있다. 내가 다시 일본을 가려는 이유는 그곳에 눈에 밝히는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간파하고 있는 것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선교'라는 이름이 불기 훨씬 이전부터 거기 있었던 것이 있다. 사랑이신 하나님과 사람들이 바로 선교의 본체가 아닐까. 일본의 복음화는 여전히 요원하지만 한 것 같은데 우리는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섰다. 반기지도 않는 땅에서 서러움 받고 사는 우리 동포들 때문에, 고난밖에 없어 보이는 기독교를 신실하게 믿으며 전체주의를 온 몸으로 맞서가는 일본의 복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멀쩡하게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두고 다른 주인을 찾아 방황하는 일본을 안 타깝게 여기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얼굴 때문에 우리는 땅 끝까지 가야 한다.

## 홍콩

1,000가정을 방문해 한 가정도 결실을 맺지 못한 지역에서 2년만에 26명이 모여 예배

조 중 선(집사, 중동3부 교사)

선 교연구원에서 선교 교육을 받다가 홍콩 단기 선교 대원의 한 사람으로 파송받게 되어 현지에서



▲공원에서 전도하고 있는 홍콩의 김은태 선교사

생생한 선교현장을 접하고 돌아오니 감회가 새롭다. 홍콩 단기 선교를 자원하여 파견 전에 훈련을 받을 때까지 해도 부족하고 어떤 재능과 특기도 없으며 그렇다고 한창 젊은 신세대도 아닌 내가 그곳에 가서 과연 무엇으로 그곳 선교사역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있었지만 젊은 형제 자매 대원들이 사역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뒤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하나의 선교사역이라는 생각이 들어 사역기간 동안 새벽기도 후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 바쁜 시간 동안 나와 비슷한 연령층의 다른 2명의 대원과 함께 손수 아침 식사를 준비하여 사역에 협력하였다.

김은태 선교사님의 사역지인 우두각 지역은 홍콩에서도 가장 빈민층이 많고 정부 보조금을 받아 근근히 하루하루 생활하며 온 지역이 우상숭배로 가득찬 지역으로서 원주민 전도가 보통 어려운 곳이 아니었다. 서민 아파트가 뽕뽕히 들어찬 이곳에 축조전도를 나갈 때는 열심히 전도하여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영접하도록 힘과 정성을 쏟겠다고 다짐하였는데, 실제 방문해보니 선교가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7, 8평쯤으로 보이는 방에 철창문을 달고 그것도 부족하여 철문과 안에 또 다른 문으로 장막을 치고 문도 안 열어 준은 물론 계속 문을 노크하면 마치 못해 철창문을 통해 목내 내 비치고 대화에 응해 주었는데, 그것도 '예수님' 말만 들어도 문을 닫고 몸을 감추는가 하면, 마치 외계에서 별난 인간이라도 나타난 것처럼 이상한 눈초리로 꿰뚫어 보기도 하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광둥어로 말하면 일언지하에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거절하는 것을 보았다. 우연히 쇠창살문으로 방안을 들여다 보게 되었는데 온갖 부적과 이상야릇한 우상을 애물단지로 장식하고 있어 영혼이 죽어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해 하고 계시랴를 생각했고 해외에서의 현지 원주민 선교가 이렇게도 어려운 일인가, 지금까지 40여년을 살아오면서 어려운 고초를 겪기도 했지만 선교처럼 이 세상에서 어려운 것이 없다는 것을 새삼 마음 깊이 느꼈다.

김은태 선교사님이 처음에 우두각 지역에 축조 전도를 할 때 1,000가정을 방문해 한 가정도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불신앙과 미신으로 가득찬 우두각 지역에 현지 교회를 개척한 지 2년만에 주일날 26명 정도의 신자가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지만 김은태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면서 거둔 헌신적인 사역의 열매라고 생각하니 감동의 눈물이 쏟아지려는 심정은 나만이 아닌 온 대원의 똑같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라는 지상명령을 파송 전에 익히 알고 있었지만 실제 현지 상황을 접하고 보니 앞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선교사역에 몰입함으로써, 그리고 기도로 동참하겠다는 굳은 다짐과 결심을 갖고 돌아왔다. 이번 홍콩 단기 선교를 통하여 김희수 목사님과 단장 강철형 집사님을 비롯하여 온 대원이 따뜻한 사랑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선교의 생생한 현장을 체험했으며, 김은태 선교사님께 조금이나마 마음적으로 위안과 격려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며 출발 당일 새벽에 뜨겁게 기도해 주신 김창인 원로목사님과 선교위원장 노광현 장로님을 비롯해서 온 교우들의 기도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터키, 불가리아

기도하던 두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진다. 이 땅도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이 수 경(청년1부 회원)

대학교 3, 4학년때 었던가? 히브리서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11:33) 이곳이 바로 터키지역의 암혈과 토굴임을 알게 되면서, 신약 초대교회의 일곱교회가 터키지역임을 알게 되면서 막연히 터키라는 곳에 대해 열망을 품었다. 그곳에 한 번 가 보리라.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도했던 그곳.

청년부 터키 단기 사역 소식을 듣고 마음에 흥분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환경(직장 휴가 일정, 경비 등)으로 뒤늦게 참여했다. 터키 단기 사역을 위해 모슬렘을 공부했고 기도로는 열두 번도 더 터키 지역을 방문했다. 터키에 계신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이신 김원호 선교사님과 수없는 팩스 통신, 매 주일 저녁모임, 각자들의 준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즈음 비행기표에 문제가 생겼다. 우리가 계획한 일정에 비행기를 예약할 수 없었다. 이 여행사 저 여행사 지칠대로 알아 보았지만 그곳, 터키로 갈 길이 보이지 않았다. 이 일을 놓고 회의를 했다. 꼭 터키여야 하는가, 사역지를 바꾸자, 아니다 우리는 꼭 죽어도(?)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결국 연속 금식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하자고, 모든 결정을 일단 기도 뒤로 유보하자고 했다. 금식을 하며 나는 내가 터키를 향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교만에 들떠 있었음을 발견했다. '그래, 떠나는 떠나지 못하는 터키에 대한 우리의 계획, 사역 등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 놓자.'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금식 기도가 끝나는 날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터키로 가는 비행기표를 손에 쥐어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다시 새롭게 사역 준비를 해 나갔다. 낮에는 각자 자신의 일터에서 일하고 밤이 되면 인형극 사역, 찬양 인도, 드라마 '헨즈', 시청각 복음 제시 등 각 팀별로 모여 연습을 했다. 또한 함께 모여 현지에서 사용될 준비물들을 준비하고 단어를 제작하며 간단한 터키어 인사와 전도 용어, 터키어 찬양, 율동을 배우고 기도회를 하며 매일밤 11시, 12시까지 밤이슬을 맞으며 집에 귀가하는 강행군을 하였다. 터키를 위해 기도하면서 너무나 막연했다. 터키는 모슬렘 국가로 국민의 99.89%가 회교도이며 0.02%의 극소수가 개신교이다.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지만 노방 전도나 공공 전도 행위는 회교도들의 탄압과 공공연한 테러로 할 수 없다. 그래서 터키의 난민들, 집시, 쿠르드족들과 같은 터키 소수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불가리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다. 터키에서는 그저 땅을 밟으며 기도하고 정탐을 할 뿐이라고 한다.

그렇게 힘들게 가는데 정탐뿐이라니 조금은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날 우연히 다른 교회에서 발행된 터키 단기사역 보고서를 보게 되었다. 250여명이나 결선했다는 것을 보고 이것이 나에게 도전이 되었고 힘이 되었다. 기도 제목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었다. 1) 터키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2) 준비되어진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하사 결신자가 많이 생기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동참하는 사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3) 대원들을 섬기며 용납하며 사랑하며 많은 개인 사역들(로프 트릭, 찬양, 율동)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후원자를 모으고 이것저것 잔뜩 짐을 싸고 우리는 드디어 터키로 떠났다.

서울 김포공항을 출발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를 경유하여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다시 본격적으로 사역을



▲ 페루스티차 집시교회에서 로프 트릭(rope trick)으로 복음 제시 - "이 끈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할 불가리아 크리침까지는 꼬박 하루하고도 만나절이 걸렸다. 간단히 짐을 풀고 세단 전도사님이 시무하시는 예니코이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였다. 이곳을 기점으로 페스트라 지역의 늘잔, 앙젤, 슬레이만 전도사님이 시무하시는 교회, 아이든 교이, 한국인 여선교사님의 크리침 마할라트교회, 아살 전도사님의 이탄볼스키 교회와 살초 전도사님의 페루스티차교회 등 8개 교회를 방문하여 노방전도 및 집회를 가졌다.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마음에 들어서면서 사라졌다.

서투른 터키어 인사 '메르하바'를 외치며 탬버린을 치고 율동을 하며 찬양을 시작하면 파랑, 초록 눈동자에 흑발, 금발의 어린 동네 꼬마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호기심어린 눈길로 쳐다보았다. 우리들을 에워싸며 웅기종기 둘러앉아 함께 박수를 치며 어느새 함께 율동을 따라했다.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주를 찬양, 어린 꼬마들과 손을 마주치며 함께 찬양하면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깨닫게 된다. 둘러앉은 어린아이들 뒤로 팔짱을 낀 채 무심한 듯 바라보는 아저씨, 아이들 못지 않은 호기심 어린 눈길로 끼리끼리 서서 우리를 바라보며 소곤대는 동네 처녀들, 아기를 둘러싼 동네 아낙네들이 또 한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처음엔 그저 호기심어린 눈길로 우리를 지켜보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함께 찬양하고 율동을 하기 시작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때까지, 한국에서부터, 터키, 불가리아까지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 할지이다.' 손을 마주 잡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율동하면 우린 벌써 주 안에 한 가족이 되어 버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들의 갈급한 심령들, 언어가 틀리고 문화가 틀리지만 그들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필요했다.

이제 내가 준비한 시청각을 이용한 복음 제시가 계속되어졌다. 이름하여 로프 트릭, "이 줄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 관계의 줄이 온전할 때 사람은 행복했다. 하지만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다.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다. 그러나 오히려 공허가 찾아오고 슬픔뿐이었다.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 두 동강이 난 줄을 묶어 다시 감쪽같이 하나의 줄로 만드는 트릭을 통해 복음을 제시했을 때 사람들은 신기하게 여기면서도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어느 할머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인하여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다. 로프 트릭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심을 감사했다. 로프 트릭에 이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드라마 '헨즈'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주목한다.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사랑하라고, 창조하라고, 방어하라고 손을 주신 하나님. 그러나 사람들은 그 손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버린다. '하나님 거기 머무십시오'라고 완악하게 외치는 모습을 보며 어디선가 들리는 작은 호소음. 군대군대 서 계시는 할머니들의 눈시울이 붉어지고 두 손을 앞에 모으고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어 눈을 감아버리기도 했다. 이 드라마를 보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도록 기도하는 대원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른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듣겠다. 보겠어요. 아이들에 외치고 어른들에 외쳐며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겠노라 손을 높

이 든다. 우리도 어느새 손을 들며 기도한다. '하나님 주의 백성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열심히 통역을 해 주시던 김원호 선교사님께서 본격적으로 열정어린 목소리로 복음을 전하신다. 이사 매시... 알 수 없는 터키어들이지만 사람들의 표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뭐라 말씀하신 것일까? 여기저기 어린아이들을 둘러섰던 사람들이 손을 들고 외치기 시작한다.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기도합시다라는 뜻의 '두아에데림' 우리들도 더불어 손을 들고 기도한다. 이 어린 생명들 하나하나 주의 것이오니 기억하소서. 기도하던 두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진다. 이 땅도 주의 것임을 기억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왕 '하나님, 이들 모슬렘인들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바로 왕되심을 알도록 해 주소서' 기도해 본다. 집시교회나 혹은 불가리아어를 사용하는 교회에 가면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터키어로 그 다음에는 불가리아어로 또 집시어로 세 번을 걸쳐 통역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평소때보다 결심자가 너무 많아서 선교사님도 놀라셨다. 시키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그래서 재차 묻고 전부터 믿었던 사람은 손을 내리라고 해도 한 번 결심한 손은 하나님 앞에서 변함이 없었다.

전체 집회가 끝나면 어린이와 어른의 집회를 따로



▲ 예니코이 교회에서. "저요, 저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며 손을 드는 사람들. 발 디딜 틈도 없었다.

따로 다시 한번 갖는다. 어린이 집회에서는 대원들이 열심히 준비한 인형극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상연된다. 인형들이 나와 입을 방긋방긋거리면 아이들의 눈은 초롱초롱 빛나기 시작한다. '옛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살았던 부자가 있었어요, 그 집 앞에는 나사로라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지가 살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부자와 나사로가 모두 죽게 되었을때 나사로는 천국으로 부자는 지옥으로 가게 되었어요, 부자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에게 물 한방울만이라도 달라고 사정을 했지요. 하지만 나사로는 줄 수가 없었어요. 부자는 물, 물하며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서 살게 되었어요.'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로 갔나요? 하고 물으면 아이들은 교회가 떠나가라고 '천국에요' 하고 외친다. 선교사님께서 모든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함께 찬양하는 것으로 어린이 집회는 마친다.

어른들만을 위한 집회에서는 김동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선교사님께서 통역해 주셨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인 터키인 육셀이 간증을 했다. 올해 23살인 그는 세상을 살면 살수록 인생에 회의감을 느꼈다. 그 공허감을 잊기 위해 마약도 하고 술에 취해 보기도 하고 여자 친구도 네 명이나 사귀었다. 그러나 그 공허감은 날이 갈수록 더했다. 그래서 죽기로 결심을 하고 취약을 두 번이나 먹는 등 자살 기도를 했다. 그렇게 암담한 생활 가운데 식당에서 한 외국인(김원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 분이 육셀에게 성경책을 한 권 주었다. 그래서 육셀은 성경을 읽게 되었다. 그러나 잘 이해할 수 없었다. 목사님은 전화를 통해 교회에 올 것을 권유했다. 교회에 와 성경말씀을 배우며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 육셀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선언을 하고 이를 반대하는 약혼녀와 파혼까지 하게 되었다. 그의 부모님은 모슬렘이다. 그러나 그는 그의 여동생과 가족을 전도하며 언제나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확신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예수를 위해 한 평생 일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자신은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부자이기 때문에 자신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과 같다는 고백을 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승리가 있음을 찬양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의 위로와 교제 속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며 헤어졌다.

교회 방문을 마치고 헤어질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어느새 정이 들어버린 꼬마들, 품 안에 꼭 들어오는 깡마른 아이들이 불에 뽀뽀를 해주며 '차우'(안녕) 하면 뭐라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그저 이런 말을 할 뿐이다. 이사 매시 시지 측 세비요름(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십니다). 아이를 꼭 껴안고 잠깐 기도해 본다. '하나님, 이 아이가 평생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잠깐 왔다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늘 같이 해 주십시오.' 그렇게 눈물을 참으며 헤어지는 아이들의 깊은 초록 눈동자가 지금도 눈에 선하다. 아이들은 우리가 타는 봉고차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며 주었다. 아, 보고 싶다.

8개 교회의 방문을 다 마치고 우리는 김원호 선교사님이 시무하고 계시는 터키의 제이틴부르스교회를 방문했다. 1층은 부엌과 간단한 다과를 할 수 있도록 친교실이 있었고 지하 1층에는 예배실과 어린이를 위한 주일학교 예배실이 있었다. 예배실에서 간단하게 평가회 및 기도회를 가졌다. 주위 모슬렘들의 탄압으로 늘 깨지는 유리창을 보호하기 위해 철판으로 대신한 창문과 출입구 철판을 보며, 언젠가 폭탄을 던져 움푹 패인 예배실 바닥의 폭탄자국을 보며 기도에 소홀했던 나의 안일한 모습들로 인해 눈물이 앞을 가렸다. '하나님,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완악한 모슬렘들의 마음의 벽을 열어 주십시오.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터키 사역 10여년 만에 동역자를 만난 것 같다고, 많은 힘이 되었고 선교사님 자신에게도 위로가 되었다고 선교사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셨다. 교회 장로님들과 몇몇 일꾼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기도제목을 나누었다. 미약한 숫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힘있는 기도군의 300 용사들과 같은 사람들, 터키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성도들의 모습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특별히 김원호 선교사님께서는 모슬렘을 위해 죽기로 결심하고 이미 유언까지 남겼다고 말씀하셨다. 너무나 담담하게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며 처음에는 그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그런 뜻인 줄 알았다. 그런데 정말 생명을 걸고 모슬렘을 위해 복음을 전하시겠다는 말씀임을 깨닫고 가슴이 뭉클했다. 그저 터키가 세계 최대 미전도 종족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곳이다'라고 사역지를 정하셨다는 선교사님, 기도해야 한다.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야 한다. 함께 싸워야 한다. 주의 군사된 동역자로... 아쉬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는 뜨거운 마음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서울로 발걸음을 옮겼다.

9일을 다녀오고 일주일을 시차로 인해 고생했다. 낮엔 쏟아지는 잠을 주체할 수 없어 병든 닭모양으로 졸고 밤엔 자야 할 시간을 넘기며 또랑또랑 깨어 있고, 마끈마끈한 간증을 듣는다고 오자마자 졸라대는 후배와 친구들을 만나 이것저것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쏟아 놓았다. 제 자랑하듯이 품에 안기던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고 김원호 선교사님의 빛나는 눈이 아른거리고 육셀의 박자 엉망의 '이사, 짹짹, 자페르니...' 가스펠이 돌리는 듯 했다. 세단 전도사님 가족의 따뜻한 사랑이 그리웠다. 그리고 일주일의 더 지났다. 다시 일상의 생활 속에 묻혀 자연스레(?) 지냈다. 사전을 보며 벌써 몇 해는 흐른 것 같은 먼 추억들을 뒤적이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 그때는 그랬지, 정말 좋았었지, 어느새 과거형이 되어버린 그때, 그 감격, 은혜, 결심들. 밤마다 기도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며칠이나 되었다고 감백하고 그러는지, 이런 모습들이 미안했던지 지난 밤 꿈엔 터키와 불가리아를 보았다. 터키의 한 재래시장에서 만났던 젊은 터키인도 보았다. 여전히 그는 내게 '예수를 믿을 수 없다' 했고 나는 뭐라고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다. 담담한 마음에 눈을 떴다. 그때도 그랬다. 자신은 진리에 관심이 있고 신약도 읽어 보았다. 그래서 예수가 훌륭한 선지자라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것은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모하멧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는다고 했다. 어수선한 시장 한복판에서 서투른 영어를 통해 예수를 논하던 그 청년, 나는 그저 "예수님만이 당신의 구세주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겐 모슬렘의 두꺼운 벽을 느낀 경험이었으며 그 청년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은 내내 마음을 무겁게 했었다. 잊고 있었는데, 감정은 쉽게 사라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에 다시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알게 하셨다. 의지적으로 결심해야겠다. '터키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 마음에 그들을 기억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터키텐 대원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갖기로 했다. 그곳 선교사님과 사역자들의 경제적 필요를 채워 주기로 했다. 무엇보다 기도로 후원할 것이다. 이런 모임들을 통해 연합한 내 모습들이 채워지고 격려되어지리라 믿는다. 오늘도 역사의 한가운데서 우주를 통치하시며 세계 곳곳을 눈동자와 같이 세밀하게 보고 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 '이 세계, 이 땅, 고치소서. 주의 백성 다 주의 것 되게 하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모슬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터키)의 성읍들에 이르기까지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사 40:9)

## 태국

### 속사도행전— 기도와 찬양과 사랑과 은혜의 태국 종횡 2,000km 행진기

송 환 창(장로, 태국단기선교팀 단장)

**중** 현교회는 태국 주재 총회선교부(KGAM in Thailand)의 안내와 인도를 받아 지난 1994년 8월 2일부터 8월 11일까지 처음으로 태국에 단기선교팀 33명을 파송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1996년 8월 19일부터 8월 27일까지 8박 9일의 일정으로 제2차 단기선교팀 15명을 파송하였다.

인간적으로 볼 때, 신학을 깊이 있게 배운 것도 아니고, 훌륭한 지식이나 탁월한 기술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오직 태국 영혼을 위한 뜨거운 열정만을 가진 젊은 이들이었고 또 시간적으로도 너무나 짧은 기간에 무슨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복음의 불모지 태국에 선교의 씨앗을 뿌리고 돌아왔으니 우리 주님이 가꾸어 주시고 곧 열매를 거두워 주실 줄 믿으면서 또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그곳에서 진한 감동과 선교에 대한 비전과 도전을 받은 것이 더 큰 수확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단기선교의 이모저모를 보고 드리고자 한다.

#### 1. 태국은 어떤 나라인가

태국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독립 국가로서 1257년 페공강 유역의 인도네시아계 쿠메루족을 물리치고 타이족 최초의 수코타이 왕조를 창건하였다(수도는 태국 북부의 수코타이).

민족적으로 다양한 국민(타이인 80%, 중국인 12%, 말레이인 3%, 쿠메루인 3%, 기타 소수부족 2%)임에도 불구하고 타이문자를 창안하여 공통언어로 통일하고, 불교를 국교로 정하였다.

14세기 중반에는 아유타유(중부, 방콕 북방의 도시)왕조와 합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특히 16세기경에는 태국에 일본인이 대거 진출하여 혼란을 이루고 융성하였으며 러일 전쟁시에 러시아의 발틱함대가 인도양을 지나 남지나해를 통과하는 상황을 상세히 일본측에 통보해 줌으로써 일본이 해상전에서 승기를 잡아 러일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준 일은 너무나 유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와같이 태국은 서구열강에 문호를 개방하면서도 주체성을 잃지 않고 주변의 강대국과 유연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융통성을 발휘하여 처세하기 때문에 동남아 국가 중에서 서구열강의 침략이



▲ 카렌족 어린이가 기숙사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

나 지배를 받지 않은 유일한 나라로, 민족적 자부심이 대단하다.

뿐만 아니라 주변국가의 거의 전부가 공산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라오스, 미얀마(버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이루고 베트남(월남)과 중국과도 접하고 있으나, 유일하게 공산주의가 침투하지 못한 나라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이들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1인당 국민소득이 1,194달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빈부의 차이와 엄격한 신분사회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층간의 갈등이나 투쟁이 심하지 않은 것은 역시 그들의 국민성과 종교(불교)의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의 수도 방콕은 인구 600만명의 거대도시로서 한때는 "동양의 베니스"라고 격찬되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도시 사이를 흐르는 수로(水路)가 심하게 오염되어 악취가 코를 찌를 정도인데 한편에는 빌딩의 숲으로 뒤덮인 현대적인 도시의 면모도 아울러 볼 수 있어서 관광으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 예로써 방콕국제공항은 1950년도에 축조되었는데 당시 일본의 나리타공항보다도 큰 규모였고 동남아를 통과하는 모든 국제항공노선이 방콕을 반드시 경유하기 때문에 가히 인도차이나의 중심이 되는 요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항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나가면 발이 폭폭 빠지는 진흙탕 길을 보게 된다.

#### 2. 태국의 종교와 문화

태국인의 생활과 문화는 철저히 종교(불교)적이기 때문에 도시나 시골이나 제일 크고 화려하며 웅장한 것은 사원이라고 하는 왓(wat)을 볼 수 있다. 그 주변의 구멍가게는 모두 절에 바치는 공제물을 파는 곳이며 절에 있는 학교에서는 글을 가르치고 숙식이 곤란한 사람은 누구나 절에서 먹고 잘 수가 있다. 이와같이 절 옆에서 나서, 절에서 공부하고 먹고 살다가 죽으면 절의 화장터에서 한 줌의 재로 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승려와 국왕에 대한 존경심은 대단하며 중이 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최대 최고의 소망이기도 하다.

태국인의 94%가 불교 신자인데 불교를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로 양분할 때 개인의 구원과 엄격한 계율을 지키는 소승불교가 이들의 신앙바탕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계급간의 갈등이나 사회적이 투쟁이 없는 것이 이해될 수 있으며 1990년에 쿠데타로 집권한 "순통콩송똥" 군최고사령관도 국왕에 대하여는 충성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3. 태국 선교의 중요성

태국의 선교역사는 가톨릭이 450년이 넘고 개신교도 165년이 되지만 1975년 베트남이 패망하기까지는 복음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었으며 현재의 기독교 인구는 11만에서 15만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총회선교부(KGAM)는 태국의 지정학적, 선교학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태국을 인도차이나 반도에 대한 전략선교를 위한 교두보로 삼아 현지 교단과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1)태국 목회자 훈련원 (2)반주자 훈련원 사역을 통하여 목회자의 재훈련과 지방교회의 예배를 돕는 반주자를 양성할 뿐만 아니라 변경지대인 태국 동북부 및 북부사역을 통한 태국인 선교는 물론 소수부족인 카렌족을 비롯한 미전도종족에 대한 복음 사역을 중점 시행하고 있다.

나아가서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 주변 공산국가에 대한 선교사역에도 힘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라오스 국경과 태국 넝카이시에 대한 방송선교를 1995년 6월 1일부터 시작하여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었다.

우리 단기선교팀도 이들 사역을 도우면서 많은 지도와 안내를 받았는데 이 지면을 빌어 총회 선교부(KGAM) 선교사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그리고 비록 소수이지만 태국의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비록 불교적이었으나 몸소 삶을 통하여 보고 느끼며 살아온 생활과 문화에 젖어서 철저히 종교적이거나 믿음이 뜨겁고 성령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 안다.

#### 4. 속사도행전

##### (1) 준비와 훈련 단계

우리는 5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에 2시간씩 태국문화, 언어훈련, 기도, 찬양을 거듭하면서 준비와 훈련을 쌓았다.

그 결과 어린이사역을 물론 선교집회를 위한 준비로 간단한 태국어 인사와 찬송가 10곡을 태국어로 울음을 겹쳐서 부를 만큼 실력(?)을 가질 수 있었다.

##### (2) 출정식

8월 18일 주일 찬양예배 후에 본당 대예배실 입구에서 전대원이 김창인 목사님을 중심으로 손에 손을 맞잡고 "영적 싸움에 임하는 전사"로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간구하면서 출정식을 가졌다.

##### (3) 첫째날(8월 19일)

여호와 낫시(출 17:15)

일행은 여호와와 깃발을 높이 들고 12시 40분 KAL 기편으로 김포공항을 떠나 오후 6시 10분(현재시간 오후 4시 10분) 방콕공항에 도착, 총회선교부(KGAM) 김문수 선교사 내외분, 김농원 선교사, 영국유학 중 선교



▲ 카렌 마을에서 어린이가 성경학교를 하는 모습

지 탐사차 태국에 오신 김석우, 양덕훈 목사님의 마중을 받았다. 오후 10시 돈부앙역에서 야간열차를 타고 첫번째 목적지 우돈타니로 향하였다.

##### (4) 둘째날(8월 20일)

밤새도록 달린 야간열차는 새벽 6시 40분 쿼와파역에 우리를 도착시켰다.

대기시켜 놓은 봉고차 2대에 분승하여 5시간을 달린 끝에 굿양마을에 도착. 도착예배(와서 우리를 도우라 행 16:9) 후 아직도 미완성 중인 굿양교회에 페인트칠을 전대원과 총회선교부 선교사님이 협력하여 교회 건물 내외벽을 깔끔히 도장 완료하였다. 오후에는 소고를 치면서 마을을 한 바퀴 돌아 어린이들을 모았다. 대원을 2개반으로 나누어 한 반은 굿양마을, 다른 한 반은 인근 바야오마을에서 각각 100여명씩을 모아놓고 집회를 가졌다. 저녁에는 굿양마을에서 성인과 어린이 130여명을 놓고 저녁집회를 가졌고, 특별히 전 대원은 굿양교회 건축 완성을 위해 특별헌금을 바쳤다.

##### (5) 셋째날(8월 21일)

담대하게 사역하라(수 1:18)

오전에 2개반으로 나뉘어 굿양마을과 바야오마을의 성도집을 10가정 심방한 다음 우돈타니로 출발하였다.

우돈타니 싸마귀담 기독교회를 방문하여 전교생 900명을 세 번에 나누어, 인형극, 고전무용, 성경이야기, 태권도 시범 등 집회를 가졌다.

저녁은 싸마귀담교회에서 그곳 성도들과 함께 수요일예배를 드린 후 우돈타니 김문수 선교사님댁에서 일



▲ 카렌족 학생기숙사에서 야간 집회

박하였다.

#### (6) 넷째날(8월 22일)

양을 먹이라(요 21:15-17)

아침에 라오스 국경(메콩강)에 가서 강 너머로 라오스를 바라보면서 저곳에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이어서 넝카이에 있는 국영방송국을 방문하여 시설을 견학하고 라오스에 대한 방송선교 현황을 청취하였다. 라오스에 대한 방송선교는 오후와 밤시간에 매일 방송되는데 그동안 AM으로만 방송하다가 FM방송까지 하기 시작하자 매주 10통 이상의 편지가 오는 등 대단한 성과를 올리고 있었으며 특별히 방송사역을 위하여 충현교회에서 매달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어서 참으로 유익한 사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이어서 이곳 우돈타니 13노회본부를 방문하고 다음 목적지를 향해 장장 10시간의 버스여행 끝에 오후 11시 30분 때문에 도착하여 D. K. House에서 1박하였다.

#### (7) 다섯째날(8월 23일)

복음을 위한 고난(딤후 1:7-14)

카렌족의 촌락 짜비마을을 향해 트럭버스(태국명: 쏜태호)로 달렸다. 짜비마을에 도착하자 그곳 초등학교를 찾아 200여명의 어린이와 함께 집회를 가졌다. 도중에 매마인 마술사로서 요술, 마술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아놀드 전도사를 만나 우리 팀과 합류하여 함께 사역을 하였다.

저녁집회는 짜비마을의 프라폰교회가 비로 인하여 길이 막혀 마을 공터에서 2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는데 10명의 새로운 결신자를 얻었다.

#### (8) 여섯째날(8월 24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빌 2:1-12)

오전에는 두 팀으로 나누어 의료봉사(의사가 없음으로 중상을 듣고 약품을 주며 목사님이 기도해 주었다)와 어린이 사역을 각각 실시하였다.

오후에는 같은 카렌족 촌락인 모아마을로 이동하여 카렌어로 된 전도지를 배포하면서 마을을 돌아 어린이를 모아 사역하였다. 저녁에는 교회당이 좁고 전기가 없어서 마을 공터에서 임시전구를 가설하고 저녁집회를 가졌는데 20여명의 새로운 결신자를 얻어 우리가 함께 인수하고 감격의 기도를 올렸다. 총회선교부(KGAM) 오영철 선교사가 어학훈련 중이라 토요일에야 우리와 합류하였다.

#### (9) 일곱째날(8월 25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고후 5:17-19)

어제 비로 인하여 가지 못했던 산 위에 있는 프라폰교회를 찾아 기도를 드린 후 마을에 있는 락푸라쿤(은혜)교회로 이동하였다.

오전 11시, 이곳에서 김문수 선교사님의 설교로 카렌족 성도들과 같이 주일예배를 드렸다. 오후에는 미얀마 국경지대를 찾아 강 건너로 버마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를 드렸다.

락푸라쿤교회는 지난해 1월에 교회 건물을 신축 헌당하였는데 제1차로 1994년도에 파송되었던 충현교회 단기선교팀 대원이 그 건축헌금의 일부를 기탁하였다고 온 성도들이 각별한 우애와 친절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다. 저녁에는 카렌족 학생의 기숙사에서 80명의 학생들과 함께 저녁집회를 가진 뒤 오후 9시 30분에 고속버스에 미팅으로 이동하여 야간 우등버스로 방콕으로

떠났다.

#### (10) 여덟째날

(8월 27일)

밤새도록 달리는 버스 안에서 우리는 그간의 사역을 평가 분석하면서 서로 진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영국에서 유학 중 이곳에 선교지 탐사차 오신 두 분 목사님이 모두 태국을 선교지로 정하고 섬기겠다는 각오를 피력하자 모두 갈채를 보내면서 아멘으로 화답하였다.

오전 7시쯤 방콕에 도착하여 총회선교부(KGAM) 강대홍 선교사님의 마음을 받았다.

방콕에서 전 대원이

간단한 문화 탐방을 하고 총회선교부의 저녁 대접을 받은 다음 오후 11시까지 총회선교부 게스트 하우스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방콕 국제공항으로 떠났다.

#### (11) 아홉째날(8월 27일)

오전 9시에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전 대원이 함께 무사귀환을 감사하며 새로운 선교 비전을 다지면서 간절한 기도로 개전식을 가졌다.

#### (12) 맺음말

우리는 짧은 기간에 방콕을 기점으로 하여 동부, 북부 등 중경으로 무려 2,000Km를 숨가쁘게 달려왔다. 그리고 강행군 속에서도 매일 아침 6시면 경건회를 갖고 말씀과 기도로 스스로를 깨우치면서 그날그날 사역에 임하였고 또 밤이면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평가회를 하기도 빠지지 않고 가졌었다.

물론 총회선교부(KGAM)의 전적인 안내지도를 받은 사역이었고 우리 팀 단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영성훈련과 선교열정을 일깨워 주어 전 대원이 큰 도전과 비전을 가지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태국인과 카렌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만도 큰 수확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참으로 길고 지루한 선교여정이었지만 파곤을 잊으며 차 속에서 쉬지 않고 기도와 찬양과 간증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집회에서 본 어린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심방 중 또는 길에서 만난 성도들의 행편을 떠올리며 그들을 위해 사랑과 은혜를 간구하는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이번 태국의 선교여행은 2,000Km를 달린 기도와 찬양과 사랑과 은혜의 연속적인 행진이었음을 고백한다.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끝까지 동행 인도해 주신 총회선교부(KGAM)의 강대홍, 김문수 내외분, 김농원, 오영철 선교사님과 선교지 답사차 오셨던 김석우, 양덕훈 목사님께 거듭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하시는 선교사역에 큰 열매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바이다.

## 필리핀

### 사랑의 집짓기 사역

임영호(대학부교사)

8월 17일부터 24일까지 1주일간 대학부 4명, 청년부 1명 모두 5명이 헤비타트(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Habitat for Humanity Korea)를 통해 필리핀에서 집을 짓는 자원봉사를 하고 돌아왔다. 헤비타트는 무주택자들을 위해 집을 지어 주는 기독교 자원봉사 단체로(이사장 정근모 전 과기처장관) 우리 교회에는 95년에 처음 소개되고 지금은 대학부 소그룹으로



▲ 집의 완공을 앞두고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기념 촬영(필리핀)

활동 중이며 올해로 두번째 workcamp를 다녀왔다.

이번 사역은 필리핀 네그로스섬 바콜로드시에 앤드류와 탯 리갈라도 부부가 기증한 땅에 모두 52가구의 집을 짓는 계획 가운데 2가구를 짓는 일로 41명의 한국의 자원봉사자들이 두 가정을 위한 건축비를 부담하고 자원봉사로 집을 짓는 사역이었다. 한 가정이 살 집을 짓는데 필요한 건축비는 약 150만원(한 가정의 운명을 바꾸기에는 너무나 적은 액수이다). 한국에서 두 가정의 집 값을 마련해 갔는데 대부분 의정부 중앙감리교회에서 부담하였다(다음에는 충현교회가 이런 일을 담당하기를 소원한다).

이 사역은 몸으로 봉사하는 사역이지만 그 동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실천하여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있다. 하루의 모든 일과가 경건회로 시작하고, 기도회로 마무리되며 집을 다 짓고 가정 수혜자들에게 집을 증정하는 '현정식'에서는 집 열쇠와 함께 성경책이 전해진다. 입으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지 않지만 일주일간의 봉사자들의 행동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느끼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역의 특징이다.

또한 참가자들이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데 땀을 흘려 봉사를 하면, 그 땀의 열매가 바로 눈앞에 나타나고(다른 사역과 가장 큰 차이점)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쓰임을 받았구나'라는 감사와 찬송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게 된다.

이 사역은 참 소망이 있는 사역이다. 집을 짓고 돌아온 필리핀 헤비타트 마을은 앞으로 모두 52가정이 입주하게 되는데 그들은 빈곤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지역은 기독교인 마을을 형성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 그들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리하여 천국을 이 땅 위에 확장시키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 사역이 선교의 문이 점점 단허가고 있는 제3세계 국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이 사역은 많은 물질과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다. 집을 짓기 위한 땅을 기증하거나 저렴하게 제공해 주는 사람,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 시간을 내어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 등의 협력으로 이 사역은 이루어진다.

국내에서도 이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의정부에 3채의 집이 지어졌고, 4채의 집이 건축 중에 있으며 태백시와 전주시에선도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은 미약한 단계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사역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인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

내년 1월에도 이와 같은 사역이 준비되고 있다. AYC(Asia Youth Challenge)에 15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게 된다. 97년 1월 8일부터 20일까지 필리핀 5개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10월 13일까지 대학부 임영호 간사(015-298-1519)나 한국 헤비타트(261-3702)로 연락바랍니다.

## 토막소식

▶ 영아부에서는 오는 29일 반별 찬송가부르기 대회를 실시한다.

▶ 초등1부에서는 오늘 성경퀴즈대회를 실시한다. 범위는 1, 2학기 계단공과이다.

▶ 초등2부에서는 오는 10월 27일 초청전도잔치를 열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매주 토요일 오후 학동초등학교와 논현초등학교 앞에서 전도를 실시하고 있다.

▶ 초등4부에서는 오는 10월 13일 과별 대항 전체 찬송가 부르기 대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정곡은 믿음과 370, 497장, 소망과 78, 446장, 사랑과 49, 542장, 충성과 468, 427장이다.

### 루디아 중창단 모집 음악 전공자(소프라노) 2명

여전도회 루디아연합회에서는 루디아 중창단을 발족하며 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파트는 소프라노 2명으로 전공자를 원하고 있다.

신청은 루디아연합회 회장인 전경금 집사(☎ 0342-706-1182)나 전도위원회실로 하면 된다.

▶ 고등부에서는 10월 13일~11월 3일에 중창 페스티벌을 갖기로 하고 9월 29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 장년1부에서는 오늘 성경퀴즈대회를 실시하는데, 범위는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전장이다.

▶ 장년2부에서는 오늘 성경암송대회를 실시한다. 범위는 로마서 12장 1-21절이다.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 소망부에서는 오늘 찬송가 부르기 대회를 실시한다.

▶ 새가정부에서는 오늘 총동원주일로 모인다. 회원 가족들이 전원 참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성경퀴즈대회와 사진 콘테스트를 통해 서로 친교를 나누게 된다.

▶ 가브리엘찬양대에서는 오는 11월 21일 성경암송대회를 실시한다. 암송 범위는 로마서 8장 전장으로 성가대원들이 준비를 철저히 하여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연말에는 성경쓰기와 읽기에 대한 시상도 있을 예정이다.

▶ 임마누엘찬양대에서는 오는 10월 3일(목, 개천절) 체육대회를 실시한다.

▶ 호산나찬양대에서는 소프라노 대원을 모집한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리기를 원하는 성도는 수요일부 예배 후 본당 지하 1층 연습실로 문의하면 된다.

## 주차지침

### 1. 대중교통 이용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 2. 1부, 4부예배

주일 1부와 4부예배시에는 본당 앞에 주차를 삼가하여 주십시오.

### 3. 지체없이 이동

주일 2부와 3부예배시에 본당 앞과 교육관 및 선교관 앞뒤에 주차하신 성도들은 예배 후 빨리 이동하여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 주십시오.

### 4. 종일 주차

아침에 와서 저녁 찬양예배 후 귀가하는 직분자는 반드시 제2교육관 지하 4층을 이용해 주십시오.

### 5. 출입구

주차장 출입구 주변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차를 삼가해 주십시오.

### 6. 통로에 주차

통로에 주차하는 성도들은 ①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② 기어는 중립에, ③ 핸들은 똑바로 하여 주차해 주십시오.

### 7. 장시간 주차시

통로에 장시간 주차시에는 수시로 확

인하여 주차지역으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 8. 방향지시등

주차장 출입시에는 방향지시등을 켜서 안내자들이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십시오.

### 9. 주차선

차량을 주차선 안에 정확하게 세워 주십시오.

### 10. 배기가스

배기가스가 화단이나 건물벽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 11. 안내에 적극 협력

주차의 명랑한 분위기를 위하여 웃음으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 주시고, 안내자의 안내에 적극 협력하여 주십시오.

### 12. 장로, 안수집사

장로, 안수집사는 장안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 13. 승용차 주차

교회 및 제2교육관 지하 주차장은 반드시 승용차만 주차해 주십시오.

## ◀ 진중세례식을 다녀와서 ▶



### 오늘도 계속되는 사도행전의 역사

박 경 한

(목사, 찬양위원회, 12교구 지도)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9월 7일 연무대 육군 훈련소에서 있었던 5천 5백명의 진중 세례식은 한 마디로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연병장에 모인 5천 5백 명의 훈련병들이 '아멘'과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었는데 실로 이는 가슴을 울리며 지축을 흔들 듯한 합성이었습니다. 젊은 장병들의 우렁찬 '아멘', '할렐루야'의 외침이 저들의 입술에서 나오도록 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요,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하신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현장에 있었던 것을 감사하며 깨달은 몇 가지 은혜와 감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진중 세례식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 세례를 받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순간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는 우리 주님의 지상 최후의 명령이시며 간절한 열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

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명령과 간절하신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명령하셨고, 진중 세례식은 이에 우리가 순종하여 드



린 것입니다. 진중 세례식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땅의 아침 이슬 같은 청년들이 진정한 대한의 남자로 거듭나기 위해 육체적으로 고달픈 훈련을 받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영혼이 먼저 거듭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둘째, 훈련소는 신앙의 황금 어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논산 연무대 훈련

소는 많은 대한민국 남성들에게는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남자로 태어나 가장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린 곳이며, 혈기왕성한 20대의 시절 진짜 사나이로 다시 태어나는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연무대 군인교회에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훈련소는 전도의 황금 어장이라 하시면서, 남자로써 가장 마음이 약해지고 불안한 상태에 있는 신병들, 이즈음 이들의 심정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데, 이렇게 이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의 마음이 약하여지고 외로워질 때, 고난 중에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훈련소

많이 세우는 하드웨어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많은 장병들에게 세례를 주어 저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장병들에게 세례를 베풀려면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진중 세례식은 충현교회와 같은 큰 교회가 앞장 서서 해 주어야 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5천 5백명의 장병들이 세례 받기까지는 많은 기도와 수고와 희생이 배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는 해산의 수고라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먼저 몸소 친히 오셔서 장병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 사죄의 은총과 새로운 삶에 결단의 말씀을 전하신 김창인 목사님, 그리고 16분의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많은 장로님들께서 아침 일찍 오셔서 하루의 시간을 온전히 드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70여 명의 호산나찬양대원들이 특별한 시간을 내어 멀리까지 와서 은혜로운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재명 장로님을 비롯한 많은 군전도대 대원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기도와 희생이 있었기에 진중 세례식은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 같은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군 장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한 십자가의 군병이 될 때 이 나라 이 민족의 안녕과 평화가 있고 더 나아가 민족 통일의 염원을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 군 복음화와 세례화를 목표로 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군목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충현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진중 세례식을 통하여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 되도록 기도합시다.

에 입소하는 신병들의 약 1/3이 무종교인데 그들에게 진중 세례식은 예수님을 알게 하고 만나게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안타깝게 덧붙여 하신 현실적인 말씀은 군목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군승과 가톨릭 신부는 점점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장병들의 신앙 비율에 따라 뚝뚝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군인 교회를